

영화

“해외에서 성과 있어 기분 좋아”



오동진의 씨네카페

부상투혼으로 '짜패' 성공 이끈 류승완 감독

류승완과 정두홍, 액션감독과 액션무술감독이 손잡고 만든 영화 '짜패'가 성공했다. 지난 주 개봉된 이 영화는 첫주말 전국적으로 45만 가량의 관객을 모았다. '다빈치 코드' '미션 임파서블 3'의 파상공세 속에서 그 정도면 크게 선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전히 몸으로 찍은 액션영화

20여개국 동시판매 13억 벌어”

- 스타급 배우를 쓰지 않은 건 순전히 돈 때문인가.
- 맞다. 하지만 그 외에 '순전히'란 말은 좀 심하다. 제작비를 줄여야겠다는 압박감이 시달리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와이어나 특수효과 들어가지 않은, 순수하게 몸으로 하는 '다재마와리'식 액션의 영화를 하고 싶었다. 앞으로는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다. 그런 점에서 정두홍 감독과 의기투합했다.

럽 우리가 추구하는 이소름이나 성통 식 액션영화를 관객들이 얼마나 더 원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 적어도 여성관객들은 그리 많이 원하는 것 같지 않다.
- 그렇다고 들었다. 그 여성 관객분들을 위해 진짜 '센' 장면은 많이 자체하면서 찍었는데 섭섭하다.

- 촬영을 하면서 많이 다쳤다고 들었다.
- 그랬다. 워낙 거친 장면이 많아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와 정두홍, 두 주인공이 10대 '양아치'들에게 크게 물리는 장면이 있다. 우리는 그걸 '본정통 혈투'라고 부른다. 하여간 그 장면을 찍다가 무릎을 다쳤다. 영화를 잘 보면 내가 도망을 가면서 몸을 날릴 때 꼭 무릎을 잡는게 보일 거다. 그때 진짜 몸이 정상이 아니었다. 그 장면 촬영을 끝낸 다음 택시로 병원을 가는데 정두홍 감독에게 전화가 왔다. 그 사람 워낙 많이 다쳐 본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전문인데 전화로 그러더라. 십자대만 끊어지지 않았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 근데 결과는?
- 심자대만 끊어졌다.(웃음)
- 그렇게 몸바쳐 찍은 영화다. 일단 성공적이어서 다행이다.

-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성과가 있어 기분이 좋다. 특히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이 영화를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등 유럽이나 브라질 같은 남미, 동남아시아까지 전세계 20개국에 동시에 판매됐다고 하더라.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벌었다고 들었다. 그 정도면 제작비의 절반 가량을 회수하게 된 셈인데, 영화를 만들면서 해외시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배우는 계기가 됐다. 이런 식이라면 영화제작에 새로운 용기를 내볼 만 하다고 본다.

- 무릎이 안좋은 만큼 액션영화를 또 만들긴 당분간 어렵겠다.
- 음... 그래서 다음 영화는 멜로 영화를 만들 거다.(웃음)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에 만나 실제 연인이 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초대형 유람선 세트·해일장관

포세이돈 어드벤처



감독 볼프강 피터스 | 주연 커트 러셀, 리처드 그레프스 등

'특전 U보트'에서 '퍼펙트 스톰' 등에 이르기까지 물로 인해 겪게 되는 재난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독일 출신 볼프강 피터스의 신작이자 과거 1972년에 만들어진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리메이크작이다.

전작에서 진 핵크만이 맡았던 주인공 공역이 이번 리메이크판에서는 커트 러셀이 맡았다.

72년작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전설적인 재난영화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유는 재난을 빚자한 단순한 스펙터클의 눈요기용 영화가 아니라

'희생'이 강조되는 휴먼 스토리였기 때문. 진 핵크만이 맡았던 목사가 마지막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신에게 "왜 저희를 이런 시련에 들게 하시는 겁니까?"라고 부르짖는 장면은 영화사 명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 하지만 한가지 힌트를 덧붙이자면 이번 리메이크판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재난의 스펙터클'을 보다 강조한 작품이다.

새영화

해킹-보안 치열한 두뇌게임

모노폴리

감독 이항배 | 주연 양동근, 김성수, 윤지민 등

카이스트 출신의 천재 프로그래머로 한국의 은행전산망을 관리하는 주인공이 또 다른 천재적 사기꾼을 만나 전국 은행에서 돈을 교묘하게 빼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이야기.

양동근과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미지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제목인 '모노폴리'는 블루마블 게임의 일종으로 영어만으로는 '독점'이라는 뜻이다.

'모노폴리'는 최근 한국 영화에서 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화이트 칼



라' 직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자카르타', '범죄의 재구성' 같은 범죄 드라마처럼 반전도 있다.

하지만 지능범죄에서 보여줘야 할 고도의 심리전과 작전의 치밀함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최대약점이다. '네 멋대로 해라', '타터 갱' 서 터프가이 양동근의 팬이라면 소심한 범행으로 변한 또 다른 그를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광주도 '디지털 시네마' 시대

일반스크린보다 4배 이상 해상도가 뛰어난 디지털 상영 방식을 이용한 '디지털 시네마'가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상영된다.

메가박스 광주점(점장 최종문)은 31일 개봉한 블록버스터 영화 '포세이돈'을 시작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2-망자의 함(사진)' '슈퍼맨 리턴즈' '카(ear)' 등으로 디지털 상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월드컵 한국전 경기가 열리는 13일과 19일, 24일에는 한국전 경기를 대형스크린을 통해 디지털로 볼 수 있는 'red party'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



다. 디지털 상영방식은 스크린에 필름을 영사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DLP(Digital Light Processing)프로젝터라는 디지털 영사기를 통해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광성정기자 ks@kwangju.co.kr

해외 영화계 이슈

생체인류학자 헬렌 피셔 분석

직업 환경 탓...도파민' 생성과 연관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턴, 니콜 키드먼과 톰 크루즈, 알렉 볼드윈과 킴 베이싱어, 제니퍼 로페스와 벤 에플렉, 기네스 펠트로와 브래드 피트의 공통점은? 이제는 해어진 스타커플들이란 점 외에도 또 한가지는 이들 모두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 사랑에 빠졌다는 점이다.

배우들은 왜 촬영장에서 그토록 자주 사랑에 빠지는 것일까. 멋진 상대의 배우에게 쉽게 반하는 바람기 때문일까. 아니면 일종의 직업병인 것일까. 사랑하는 사이인 배우 커플이 남녀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기 쉬울까 아니면 더 어려운 것일까.

필리와 피트의 떠돌이 스타들과 최근의 딸 출신으로 스타커플들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유례없이 높아진 가운데, 배우들이 유난히 영화세트장에서 자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직

배우들 '세트장 사랑' 왜?

업적 환경 탓이 크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가'란 저서를 내놓은 생체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특정한 흥분감을 느끼게 될 때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란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로맨틱한 연애감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서 "로맨스를 극대화하는 영화세트 안에서 장기간 일하는 배우들이 상대방 배우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배우가 스페인출신 여배우 페넬로페 크루즈. 그는 '코넬리아의 만물관'이란 영화에서 니콜라스 케이지와 사랑에 빠진데 이어 '바닐라 스카이'란 영화에서는 톰 크루즈와, '사하라'에서는 매튜 매코너헤이 등 새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상대의 남자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브래드 피트도 데뷔 초기 TV 드라마 출연때 만난 졸리에 루이스로부터

시작해 '세븐'에서 공연했던 기네스 펠트로와는 약혼까지 했었고,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통해 마침내 졸리를 만나게 된 것.

그렇다면 스타 커플이 흥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영화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AP와의 인터뷰에서 "촬영중 터져나온 남녀주인공의 스킨십이 영화 홍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흥행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제니퍼 로페스와 벤 에플렉 커플이 '질리'의 처절한 흥행실패 이후 결국 결별까지 한 것이 좋은 사례라는 것.

AP는 또하나의 '스타커플'로 주목받고 있는 제니퍼 네이스톤과 빈스 본의 최신작 '브레이브 코어'이 이번 주말 미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라면서 이 영화가 제2의 '질리'가 될지 아니면 '스타커플' 출연작은 흥행에 실패하기 쉽다"는 징크스를 짚기 관심거리라고 지적했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에 만나 실제 연인이 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reas in Gwangju, including 정우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매곡부동산,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아름다운부동산, 럭키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and 동화마을(신도시건설).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